

예배 및 모임안내

2019-21호 2019년 05월 26일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시15분	교육관 5번 교실
청년 기도모임	월 1회	교육관 7번 교실
말씀 나눔 모임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성경 읽기 모임	매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구역 모임	월 1회(구역 별)	구역 별 결정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삼하7:21~29)”

주일 예배 봉사위원

	06. 02	06. 09	06. 16
대 표 기 도	정용현 집사	김효종 집사	김영희 권사
성 경 봉 독	오한솔 자매	김효종 집사	김영희 권사
헌 금 위 원	김효종 집사	김영희 권사	박재기 집사
안 내 위 원	김영희 권사	김영희 권사	김영희 권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세요 (미1~7장, 합, 암1~9장, 대하1~3장)
2. 5월 생일 - 장경은 성도 (4일), 유미경 집사 (18일)
3. 성찬예식 - 다음 주일은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4. 나눔의 시간 - 장경은, 문정현 집사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교우동정

생일	장준화 형제(1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역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라마단(5월 6일부터 6월 4일) - 모슬렘인들을 위하여
3. 기도모임이 살아나고, 각 기관,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4. 김선택, 장보경 협력선교사(성진, 예린, 주 허트번, 헝가리) 사역을 위하여
5. 투병 중인 성도를 위해 - 김복자 권사, 이 현 형제의 치유를 위하여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한민 성가대
- *기 원 Altar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찬 송 Gemeindelied 47장 다같이
- *성시교독 Wechsellesung 교독문 50번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335장 다같이
- 기 도 Gebet 유미경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창 37 : 1- 10(구 p57) 유미경 집사
(1.Moses 31:1-10)
- *찬 양 Lobelied 한민 성가대
- 설 교 Predigt **요셉을 통한 행복 나누기**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336장 다같이
- 현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314장(1, 2절)..... 김효종 집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 54장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한민 성가대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 5월 생일 축하 친교실

안전지대

사람들은 누구나 안전한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안전은 모든 생명체의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고대에는 든든한 성벽, 강한 군사력 등이 안전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에는 질병의 위협으로 부터 생명을 지키고자 의학연구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이라는 제도를 개발해 돌발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비상 경계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가족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방법들이 진정한 안전책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유흥 주점에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도하는 뉴스 화면을 보는 도중 화재가 난 주점의 이름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주점의 이름은 놀랍게도 “안전지대”이었습니다. 안전하기를 바라는 그 장소가 오히려 죽음의 장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안전지대를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든 불안과 근심을 깨뜨리고 죽음과 죄악을 뛰어넘어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생명의 삶 편집부

* 교회를 평온케 하는 가장 좋은 길은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 Matthew Henry -